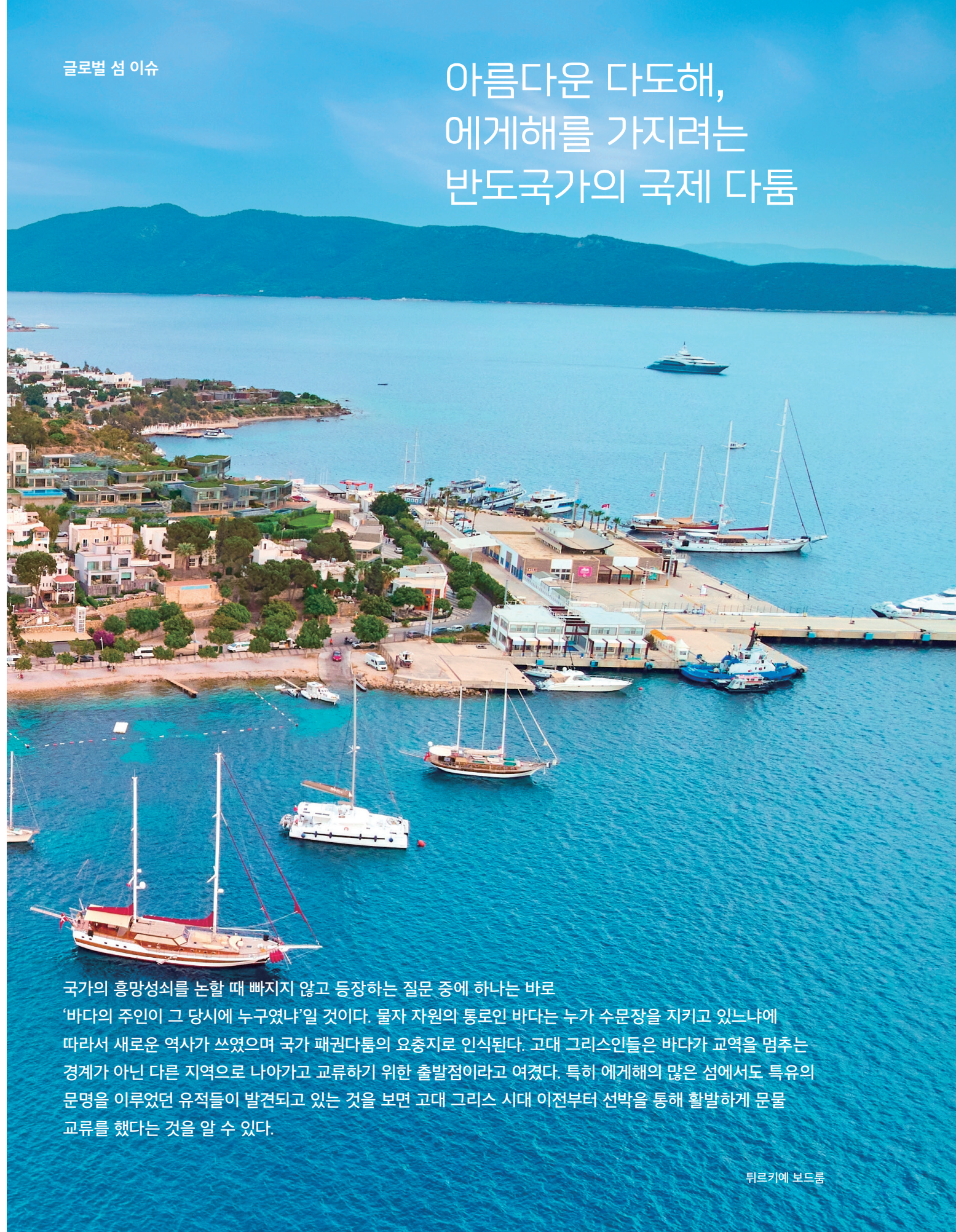


글로벌 섬 이슈

아름다운 다도해, 에게해를 가지려는 반도국가의 국제 다툼



국가의 흥망성쇠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바다의 주인이 그 당시에 누구였나’일 것이다. 물자 자원의 통로인 바다는 누가 수문장을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쓰였으며 국가 패권다툼의 요충지로 인식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다가 교역을 멈추는 경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고 교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여겼다. 특히 에게해의 많은 섬에서도 특유의 문명을 이루었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 선박을 통해 활발하게 문물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튀르키예 보드룸

바닷길과 그 거점 통로인 섬을 지키려는 노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지금도 약 400여 개의 섬으로,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서방의 다도해, 에게해가 그러하다.

에게해는 지중해 동부의 해역으로,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으며 남북 길이 약 644km, 너비 약 322km이다. 크고 작은 섬 약 40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군도(群島)를 뜻하는 아רכipelago(Archipelago)라는 명칭도 처음에는 에게해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남부의 크레타섬을 비롯해, 키클라데스제도, 스포라데스제도, 도네카니스 제도 등 아름다운 군락별 섬 제도가 에게해에 위치해 있다. 소아시아 반도와 가까운 동해안 부근의 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섬들은 그리스에 속한다.

1923년 로잔 조약을 맺어 튀르키예는 이스탄불이 있는 동트라키아 지역을, 그리스는 에게해 섬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한 셈이다. 이러한 갈등은 최근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인데, 튀르키예가 2021년 ‘튀르키예 에게해(TurkAegean, Turkish Aegean)’의 상표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튀르키예가 2021년 12월 튀르키예에서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관광 홍보 캠페인용 구호로 사용하기 위한 튀르키예 에게해(TurkAegean, Turkish Aegean)의 용어의 상표등록을 신청·승인받았으며, 2022년 여름 관광 캠페인에 ‘TurkAegean’ 또는 ‘Turkish Aegean’ 용어를 사용하여 홍보를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그리스는 “튀르키예가 우리 바다와 역사를 빼앗아갔다”며 반발에 나섰으며 “튀르키예가 ‘튀르키예 에게해’ 용어 등록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유럽연합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등록 승인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섰다.

이후 튀르키예는 그리스 크레타섬에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이 자국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는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그리스의 S-300 미사일 시스템은 튀르키예 F-16 전투기를 조준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최근 어지러운 국제 정세에 에게해의 사안 또한 심상치 않다.



두 국가는 튀르키예의
EU가입이라는 외교 정책을 통해
정치적 긴장감을 풀어보는
시도에 나섰으나,
외교적 방향 불일치로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